

광양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시 조성 '속도'

총사업비 123억 투입...전남 6호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산모·신생아 '공공돌봄' 기반 마련...출산 인프라 확충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제6호점인 광양미래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미래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정인화 광양시장, 전남도·광양시 의원,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 임산부와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광양시립합창단과 국악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사업 경과보고, 환영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순회 등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을 축하하며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안전하고 전문적인 돌봄 환경 조성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설 순회에서는 영유아실과 산모실, 프로그램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신생아 케어 시스템과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체계, 응급 상황 대응 설비 등을 확인했다. 특히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운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며 공공산후돌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

광양미래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공간과 기능을 유기적으로 배치했다. 연면적 2106㎡,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사업비 123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층별로는 1층 사무실과 상담실, 2층 영유아실·수유실·산모휴게실·마사지실, 3

~4층 산모실, 5층 프로그램실 및 급식시설을 갖췄으며, 옥상에는 산모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원 공간을 마련해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도록 설계했다.

시는 최근 4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은 인구 증가와 출산 수요 확대에 대응하는 핵심 출산 인프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은 저출생 위기 속에서 출산 인프라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적 전환이다"며 "이번 개원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정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남 동부권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돌봄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산모와 아이, 가족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제6호점인 광양미래 공공산후조리원이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사진제공=광양시



구례군은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스쿨과 협력해 운영한 '구례군 방과후지도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제공=구례군

구례군-순천대, 방과후지도사 양성 15명 교육과정 수료...지역 정주형 일자리 창출 기대

구례군은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스쿨과 협력해 운영한 '구례군 방과후지도사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과정은 지난 1월 20일부터 5주간 진행됐으며,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으로 농촌 지역 교육 돌봄 공백 해소와 지역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과정은 농촌 유학 학부모 등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교육은 방과후학교 운영 이해, 아동발달과 심리, 의사소통 기술, 효과적인 교수

법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이론 교육과 사례 기반 실습을 강화해 수강생들이 실제 자격 취득과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교육과정을 수료한 15명은 방과후지도사 1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다. 향후 지역 학교와 돌봄 시설 등에서 활동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천대학교와 긴밀히 협력해 성인 학습자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과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ikkjin@



고흥, 차범근 축구교실 참가 학생 모집 13일까지 초등학생 100명 선발...4~11월 운영

고흥군은 오는 13일까지 '2026년도 차범근 축구교실'에 참가할 초등학생을 모집한다.

차범근 축구교실은 지역 유소년들의 체력 증진과 올바른 인성 함양, 건전한 여가 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된다. 다만 7~8월 방학 기간에는 휴강한다.

모집 대상은 고흥 또는 인근 지역 초등학생 전 학년 학생이며, 총 100명 내외를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신청은 13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올해는 기존에 참여했던 학생의 지속적인 참여를 우선 보장하고, 지역 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거주 학생을 우선 선발한 뒤 관외 거주 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20일 고흥군 대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발표하며, 개강식은 4월 1일 생활체육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차범근 축구교실은 단순한 체육활동을 넘어 아이들이 협동심과 도전정신을 배우는 소중한 프로그램"이라며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곡성, 구곡순담 초고령사회 대응...장수산업 육성 본격화

(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실무회의 개최 100세 잔치 조율 등 신규 사업 발굴

곡성군이 구례군과 담양군, 순창군 등 4개 구곡순담 장수벨트지역을 아우르는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최근 곡성자유농업센터에서 2026년 제1차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장수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매년 윤번제로 의장군을 맡아 협의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곡성군이 의장군으로서 협의회 주요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회의에는 협의회 소속 지자체 실무자들이 참석해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 개최와 하반기 '100세 잔치' 행사 일정 조율을 비롯해, 행사장에 전시할 장수어르신 사진 촬영 등 올해 추진할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상반기 실무자 워크숍은 장수 관련 정

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실무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하반기에 열릴 예정인 '100세 잔치'는 장수어르신들의 삶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는 대표 행사로 추진된다. 행사에 앞서 장수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촬영해 행사장에 전시함으로써 장수의 의미를 되새기고 세대 간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참석한 실무자들은 협의회가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공동사업 발굴과 실행 중심의 협력체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업무 공유와 실무 협의를 강화하고, 장수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구곡순담 장수벨트 행정협의회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선



곡성군은 최근 곡성자유농업센터에서 2026년 제1차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장수산업의 체계적 발전과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곡성군

도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장수산업을 지역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장수 자원과 지역 특성을 연계한 공동사업 운영을 통해 어르신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gwangnam.co.kr

여수,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순항

소호동동다리 공정을 60%...내년 8월 준공 목표

여수시는 소호동동다리를 연장하는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소호호트마리나에서 송소마을 앞까지 동동다리를 연장 설치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과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정비사업에는 국비 55억원, 도비 10억원 등을 포함한 총 111억원이 투입

돼, 2027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해안산책로(L=1369m), 공영광장(A=844㎡), 전망광장(A=643㎡)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철골 가공과 해상 상부대설비 설치공사가 진행 중이며 전체 공정률은 약 60%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해상구간과 육상구간을 연결한 뒤 목재 데크와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예정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이어갈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웅천천수공원과 소

호대교, 기존 동동다리까지 연결되는 트레킹 코스 조성돼 도심에서 가깝지만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해양관광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소호동동다리 1구간에 이어 2구간도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공사 기간 중 통행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순천,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 가정 방문 무료 7개 항목 검사

순천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방문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인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집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이 신청하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수도꼭지의 수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준다. 시는 기존 6개 항목(탁도, pH, 철, 구리, 잔류염소, 아연)에 더해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망간을 추가해 총 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신청은 물사랑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이용약관 동의와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면되며, 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상수도과(061-749-65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 22000) 인증을 획득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수돗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 도시'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비롯한 철저한 수질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질이 궁금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